

국어 기출해설(A책형)

해설 - 박우찬 교수(소방사관학원)

1. 다음 글의 내용이 나타내고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영미는 모두가 사물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싫어서 사물의 이름을 자신이 정한 다른 단어로 바꿔 부르기로 결심하였다. 영미는 ‘침대’를 ‘사진’이라 부르기로 결심하고는 “침대에 누울 거야.”가 아닌, “사진에 누울 거야.”라고 말하였으며, ‘의자’를 ‘시계’라 부르면서 “시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영미 주변의 친구들은 영미의 말을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었다.

- ① 언어의 창조성 ② 언어의 사회성
- ③ 언어의 역사성 ④ 언어의 자의성

1. 정답 ② [언어의 성격]

해설 영미는 언어의 사회성을 어기고 있다. 주변 친구들이 영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언어의 사회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한 개인이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는 성격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영미는 언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성을 어겼고, 그 결과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었다.

오답풀이 ① 창조성: 한정된 말로 수많은 단어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성격

③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는 성격

④ 자의성: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

2.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서,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홀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히리라.
- 성삼문의 시조

(나)

가마귀 눈비 마즈 희는 듯 검노미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랴.
님 향(向)흔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 박팽년의 시조

- ① (가)의 ‘백설’과 (나)의 ‘눈비’는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을 의미한다.
- ② (가)의 ‘독야청청’과 (나)의 ‘일편단심’은 삶의 태도 면에서 유사하다.

- ③ (가)의 '낙락장송'과 (나)의 '야광명월'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④ (가)의 '이 몸'과 (나)의 '님'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이다.

2. 정답 ④ [조선전기 시조]

해설 (가)의 '몸'은 시적 화자 자신을 가리키므로 절개를 다짐하는 대상이 아니다. (나)의 '님'은 절개를 맹세하는 대상이 된다. (가)와 (나) 두 시조는 '절의'를 주제로 한다.

오답풀이 ① '백설'(흰 눈)은 부정적 현실, 즉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계유정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당시의 현실을 뜻한다. '눈비'도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즉 계유정난을 뜻한다. 여기서 까마귀는 쉽게 변절하는 간신을 뜻한다.

②③ '독야청청'(홀로 푸름, 곳곳함)과 '일편단심'(한 조각 붉은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인 지조와 절개를 뜻한다. 각각의 시조에서 '낙락장송'(큰 소나무)과 '야광명월'(빛나는 구슬)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여 주는 긍정적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해석

(가)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까 생각하니

봉래산(신선이 사는 동쪽 바다의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서 있는 낙락장송(가지가 늘어진 큰 소나무)이 되어서

흰 눈으로 천지가 덮여 있을 때 혼자 푸르디푸르게 살아 있으리라.

(나)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 잠시 하얗게 보이는 듯하지만 다시 검어지는구나.

야광구슬과 명월구슬이 밤이라고 해서 어둡게 변하겠는가.

임을 향한 한 조각 붉은 마음이야 변할 리가 있으랴.

3. 다음 ㉠~㉣ 중 순우리말인 것은?

유럽을 여행할 때면 ㉠국경을 넘는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거미줄처럼 유럽 주요 ㉢도시를 이어 주는 국제선 열차를 타고 있으면 수많은 여행자와 함께 하루에도 몇 번씩 국경을 넘나들게 된다. 대부분 국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넘는다. 휴대전화의 통신사가 바뀌면서 다른 국가로 들어왔다는 문자가 뱅동 울리고서야 국경을 넘은 사실을 알아차릴 정도다.

- ① ㉠ ② ㉡ ③ ㉢ ④ ㉣

3. 정답 ② [순우리말]

해설 '거미'는 고유어이다. 한자어로 '지주(蜘蛛)'라고 한다.

오답풀이

① 국경(國境): 나라<국>, 경계<경>

③ 도시(都市): 도읍<도>, 저자<시>

④ 순식간(瞬息間): 눈 깜박하다<순>, 숨 쉬다<식>, 사이<간>

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쭉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① 화자는 순수하고도 탈속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절제된 감정으로 '산'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4. 정답 ④ [현대시]

해설 시적 화자는 '산'이라는 탈속적 세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답풀이

- ① '산이 날 에워싸고'를 반복하며 자연이라는 순수하고도 탈속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 ② '산이 날 에워싸고 ~ 살아라 한다'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며 자연친화적 삶, 자연 속에서의 순수한 삶을 소망하고 있다.
- ③ '산이 ~ 살아라 한다'처럼 '산'이 시적 화자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제

1. 길잡이: 이 시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탈속의 세계, 순수한 자연에의 귀의를 꿈꾸는 소망을 담고 있다.
2. 주제: 자연 속에서의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
3. 특징
 - ① 동일한 문장 구조(산이 날 에워싸고)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함.
 - ② 산이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명령형의 어투(살아라 한다)를 통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소박하게 사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생계 → 생활상 → 정신의 달관'으로 자연과의 동화가 점층적으로 진행됨.

5. 다음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이고,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회화·공예품 등의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이다. 사적은 기념물 중 유적·신앙·정치·국방·산업 등으로서 중요한 것이고, 명승은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중요 민속 문화재도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속한다.

- ① 분류 ② 서사 ③ 대조 ④ 인과

5. 정답 ① [설명 방식]

해설 분류(구분)의 전개 방식이 나타난다. 분류는 대상이나 개념들을 공통점을 중심으로 묶어가며 설명하는 방법을 말하고, 구분은 반대로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나누어가며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분류를 구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 국가 지정 문화재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중요 민속 문화재도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속한다.

오답풀이 ② 서사: 사건이나 행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일어난 일, 즉 '무엇'에 더 중점을 둔다.

③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점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이다.

④ 인과: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일의 원인, 즉 '왜'에 초점을 둔다.

6.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cafe - 카페 ② vision - 비전
③ jazz - 재즈 ④ supermarket - 슈퍼마켓

6. 정답 ③ [외래어 표기법]

해설 '재즈'가 맞다. 서구 외래어의 경우 파찰음도 된소리로 쓰지 않는 것들이 많다. 췌(x)

오답풀이 ① 카페. 「외래어 표기법」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전. 우리말에서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 등은 일반적으로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발음이 되므로 외래어 표기에서도 이들을 단모음으로 표기한다.

④ 슈퍼마켓. 영어는 영국식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7. 높임법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 ① 고객님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② 할아버지께서 네 방으로 오라고 하셨어.
③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④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여쭙어 보셨어요.

7. 정답 ② [높임법]

해설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주격 조사 ‘께서’, 전어말 어미 ‘-시-’(하시었어/하셨어)가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고객님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시-’를 남용하는 것은 바른 경어법이 아니다. 고객을 존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불필요하게 ‘-시-’를 넣은 경우이다.

③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간접 높임법의 경우에 ‘있다’(형용사)는 ‘있으시다’로 실현된다.

④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물어 보셨어요. ‘여쭙다’는윗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다. ‘여쭙다’로 자신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 여쭙다/여쭙다: 윗어른에게 말씀을 올리다. 윗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다.

8.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새 신발을 신으니 발이 아프다.

②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③ 그는 해외로 출장을 자주 다닌다.

④ 철수는 이번 시험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8. 정답 ① [수식언]

해설 ‘새’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부사이다. ‘새’는 뒤의 명사를 꾸며 주면서 활용을 하지 않는 불변어이므로 관형사에 속한다.

오답풀이 ②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문장 부사)이다.

③ ‘자주’는 뒤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성분 부사)이다.

④ ‘정말’은 뒤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성분 부사)이다.

9.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극 갈래는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등을 거쳐 신파극, 근대극, 현대극으로 발전해 왔다. 가면극은 신라의 오기, 검무, 처용무에서 시작하여 고려의 나례, 조선의 산대희와 탈춤으로 발전하였다. 인형극은 삼국 시대의 목우희에서 나무인형으로 노는 인형극, 고려 시대의 꼭두각시놀음과 그림자극인 망석중놀이로 이어졌다. 조선 후기에 발생한 판소리는 신재효가 ㉠여섯 마당으로 정리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① 만분가

② 적벽가

③ 심청가

④ 춘향가

9. 정답 ① [판소리]

해설 「만분가(萬憤歌)」는 판소리가 아니라 조선 연산군 때 조위가 지은 유배 가사이다. 고종 때 대원군이 판소리를 좋아해서 많은 명창이 배출되기에 이른다. 이때 신재효는 전승되던 판소리 중에서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별가」, 「적벽가」, 「변강쇠가」의 판소리 여섯 마당의 사실을 정리했다. 현재 악곡과 사실이 온전하게 전승되는 작품은 「춘향가」, 「흥보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다섯 마당이다.

10.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것은?

-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10. 정답 ④ [이어진문장]

해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대등적 연결 어미 '-고'에 의하여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의 절과 뒤의 절이 대등하므로 앞뒤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 '이어진문장'은 절과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이므로 연결 어미를 기준으로 하여,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오답풀이 나머지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앞의 절이 종속절이고 뒤의 절이 주절이므로 앞뒤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종속적 연결 어미 '-자'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종속적 연결 어미 '-(으)면'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종속적 연결 어미 '-아야'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1. 다음 한시의 형식적 갈래로 적절한 것은?

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독엔 풀빛이 짙어 가는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마르려는지
 別淚年年添綠波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 정지상, 「송인(送人)」

- ① 5언 절구 ② 5언 율시
- ③ 7언 절구 ④ 7언 율시

11. 정답 ③ [한시]

해설 7언 절구이다. 한 줄(구)이 일곱 자이므로 '7언', 전체 네 줄(구) 형식이므로 '절구'이다. '절구(絶句)'는 한시 근체시(近體詩) 형식의 하나로, 기(起)·승(承)·전(轉)·결(結)의 네 구로 이루어진다.

오답풀이 ① 5언 절구는 한 줄(구)이 다섯 자, 전체 네 줄(구)로 이루어진다.

②④ '율시(律詩)'는 한시 근체시 형식의 하나로, 여덟 구로 되어 있다. 한 구가 다섯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오언 율시라고 하고, 일곱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칠언 율시라고 한다.

12.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진이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공부해야 한다며 공부 계획을 짜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훈이는 그 책의 두께를 보는 순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여섯 달이 지난 후 시험에 합격한 수진이는 자신도 처음엔 책 두께를 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공부한 결과 그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있었다고 했다.

- ① 마부위침(磨斧爲針)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③ 어부지리(漁夫之利) ④ 상전벽해(桑田碧海)

12. 정답 ① [한자 성어]

해설 수진이는 꾸준히 노력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을 지닌 한자성어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이다. 본래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③ 어부지리(漁夫之利):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

④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음운의 축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되 + 어 → 돼 ② 두 + 었다 → 뒀다
 ③ 가 + 아서 → 가서 ④ 쓰 + 이어 → 씌어

13. 정답 ③ [음운 변동]

해설 ‘가+아서’가 ‘가서’가 된 것은 뒤의 모음 ‘아’가 탈락하였으므로 음운의 탈락에 속한다. 이는 용언 어간의 끝 모음 ‘ㅏ(ㅑ)’와 어미의 첫 모음 ‘아(어)’가 만나면 어미의 첫 모음 ‘아(어)’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오답풀이 나머지는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모음의 축약은 두 개의 모음이 합해서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든다. ① ㅍ+ㅏ=ㅑ, ② ㅌ+ㅑ=ㅓ, ④ ㅡ+ㅣ=ㅓ

14. 다음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눌 때, 적절한 것은?

하늘이 맑고 푸르다.

- ① 하늘이/ 맑고/ 푸르다
 ② 하늘/ 이/ 맑고/ 푸르다
 ③ 하늘/ 이/ 맑고/ 푸르/ 다
 ④ 하늘/ 이/ 맑/ 고/ 푸르/ 다

14. 정답 ④ [형태소 분석]

해설 하늘/ 이/ 맑/ 고/ 푸르/ 다(형태소 6개).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말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여기서 '의미'는 어휘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적 의미까지 포함한다.

• 형태소 분석의 순서

㉠ 어절을 나눈다. 하늘이/ 맑고/ 푸르다

㉡ 각 어절을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로 나눈다. 하늘/ 이, 맑/ 고, 푸르/ 다

㉢ 체언과 어간을 나눌 수 있다면 어근과 접사로 나눈다.

㉣ 조사와 어미의 개수를 파악한다.

15.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작성하였다. <보기>의 문장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자 료>

[한글 맞춤법]

- 제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항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보 기>

ㄱ.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ㄴ. 한국인 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있을까?

ㄷ.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진 집 한 채를 샀다.

ㄹ. 무궁화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꽃 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5. 정답 ② [띄어쓰기]

해설 'ㄱ, ㄷ'이 띄어쓰기가 맞다.

ㄱ. 알아볼√때까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므로 '알아볼(합성어)√때'처럼 띄어 쓴다. 조사 '까지'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때까지'로 붙여 쓴다.

ㄷ. 집√한√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의 관형사(수 관형사)와 띄어 쓰므로 '한√채'처럼 띄어 쓴다.

오답풀이 ㄴ. 한국인만큼: '만큼' 앞에 체언이 오면 '만큼'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한국인'은 명사이므로 여기서 '만큼'은 조사이다. 만약 '만큼'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오면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ㄹ. 꽃입니다: '입니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하십시오체 평서형)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통계 수치 본 적 있니? 현재 지구촌의 65억 인류 중 약 1/4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그 중 70%가 여성과 아이들이래. 또 약 20억 명의 전 세계 어

린이 가운데 1억 2천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며, 비슷한 수의 어린이들이 거의 노예 노동을 하고 있어. 또한 매일 3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지.

그런데 이상한 점은 후진국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들이어서 평생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지지. 왜 그럴까?

그것은 대부분의 제3 세계 나라들이 선진국의 식민지였거나 독립 이후 자유 무역에서도 여전히 종속적 위치여서 진정한 자치와 자율을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또 그런 구조 속에 이뤄진 경제 발전조차 내실 없이 외형만 커졌던 탓이기도 하고.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은 1인당 GDP가 3~4만 달러이고, 한국은 2만 달러 수준이지만, 제3 세계 나라들은 아직도 100~200달러 수준이 많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양심적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공정 무역 운동이야. 한마디로 선진국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가 후진국 사람들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성,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후진국 사람들이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야 한다는 성찰이 공정 무역을 탄생시킨 것이지.

공정 무역은 1950년대 말 영국의 국제 구호 단체 ‘옥스팜’에서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옥스팜’과 ‘텐 사우전드 빌리지’ 같은 시민 단체들이 제3 세계의 정치적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운동에 뛰어들면서 그 흐름이 대중화되었어. 특히 1989년, 전 세계 270개 공정 무역 단체가 가입한 국제 공정 무역 협회의 출범 이후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운동이 활발하지. <중략>

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전 세계 공정 무역 제품 판매는 16억 유로(약 2조 1,500억 원)어치로, 2005년에 비해 42% 늘었대. 공정 무역 인증제품만 2,000여 개 품목이 유통되고, 700만 명 이상의 생산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

스위스에서는 판매되는 바나나 중 47%가 공정 무역으로 들어온 것이고, 영국에서는 공정 무역 원두커피의 점유율이 20%나 된다고 해. 독일에서는 노동계, 환경 단체, 기업이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 무역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통해 농산물이 유기 농법으로 생산되도록, 또 농산물이 제값에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잘 감시하지.

이렇게 윤리적 소비 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공정 무역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무역이 아직 생소한 개념이야.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공정 무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

2004년에 우리나라의 한 소비자 단체에서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마스코바도 설탕을 팔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점점 관심이 늘어나 몇몇 시민 단체에서도 커피, 의류 등의 공정 무역 제품을 내놓고 있지.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에서 나온 거야.

2007년에는 한 은행의 노동조합과 소비자 단체가 연대하여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한 물품 공급 협약식을 맺었어. 이 협약은 노동조합이 윤리적 소비 실천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운동을 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 그리고 제3 세계의 농민

공동체에서 생산해 공정 무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소비하겠다고 다짐한 첫 사례라 큰 의미가 있다고 봐. 최근 강조되는 '1사 1촌 운동'을 통한 농촌 살리기가 공정 무역을 매개로 국경을 넘어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지.

16. 밑글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 때,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정 무역의 뜻은 무엇일까?
- ② 공정 무역의 문제나 한계는 없을까?
- ③ 공정 무역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 ④ 공정 무역은 언제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실태는 어떠할까?

16. 정답 ④ [사실적 독해]

해설 글의 화제를 묻고 있다. 각 단락의 첫째 문장을 읽어 보면 글의 화제와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다. 밑글은 공정 무역의 발생 배경과 현재 상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공정 무역은 언제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실태는 어떠할까?'가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하다.

→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양심적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공정 무역 운동이야(4단락 첫째 문장). 이렇게 윤리적 소비 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공정 무역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무역이 아직 생소한 개념이야(8단락).

1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공정 무역은 선진국의 대기업에서 시작되었다.
- ② 후진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아지고 있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무역이 5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 ④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도 공정 무역 운동의 하나이다.

17. 정답 ④ [사실적 독해]

해설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도 공정 무역 운동의 하나라는 내용은 9단락에 나온다.

오답풀이 ① 5단락 첫째 문장. 공정 무역은 1950년대 말 영국의 국제 구호 단체 '옥스팜'에서 시작되었다.

② 2단락. 후진국에서는 해가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진다.

③ 8단락. 유럽에서는 공정 무역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무역이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18. 밑줄 친 고유어 '느낌'에 대한 유의어를 한자어로 바꾸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도 잘 알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 기분(氣分)
- ② 그 책에 대한 느낌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
→ 소감(所感)
- ③ 전학 가는 보람이를 배웅하는데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 감정(感情)
- ④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감회(感懷)

18. 정답 ④ [유의어]

해설 '감회(感懷)'는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회포를 뜻하므로 미심쩍은 '느낌'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못하다.

오답풀이 ① 기분(氣分): 대상·환경 따위에 따라 마음에 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

② 소감(所感): 마음에 느낀 바.

③ 감정(感情):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19.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바람은 넘실 천 이랑 만 이랑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피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럴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아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 김영랑, 「오월」

- ①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색채 대비를 통해 풍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직유를 통해 산봉우리를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9. 정답 ④ [현대시]

해설 의인법을 통해 산봉우리를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산봉우리를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하듯이 산봉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랑, 뿐'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② 시선의 이동에 의한 시상 전개(들길→마을→들→바람→햇빛→보리→피꼬리→산봉우리)

③ 1~2행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가 드러난다.

해제

1. 길잡이: 시적 자아는 오월의 들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봄날의 자연이 주는 생명감이 시 전반에 넘쳐흐른다.

2. 주제: 오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오월의 아름다운 자연)

3. 특징

- ①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봄의 생동감을 강조함.
- ② 남도 지방의 토속어에서 느껴지는 향토적 색채
- ③ 자연의 의인화(자연을 여성적인 아름다움으로 노래)

20. 다음 시의 ㉠~㉣에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 ㉠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려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 ② ㉡ ③ ㉢ ④ ㉣

20. 정답 ④ [수사법]

해설 ‘강철로 된 무지개’는 역설적 표현이다. 단단하고 차가운 강철의 이미지에 부드럽고 따뜻한 무지개의 이미지가 역설적으로 겹쳐지면서 일제 강점하의 혹독한 겨울을 무지개가 표상하는 희망으로 견뎌내고 이겨 내려고 한다. 자기 결단의 순간에 느끼는 황홀감이 ‘강철로 된 무지개’로 나타났다고 보기도 한다.

오답풀이 ①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려: 상징과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일제 강점기의 혹독한 현실을 상징한다.

② 점층적 구성: 북방 → 고원 → 서릿발 칼날진 그 위